

2012년 세계 시멘트생산 36억톤, 전년대비 3% 증가

중국은 3.6% 증가한 21억톤, 유럽은 13% 감소

유럽시멘트협회(CEMBUREAU)가 추계 발표한 2012년 세계 시멘트 생산은 전년대비 3% 증가한 36억톤이다.(일부 속보치 포함)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하나 플러스 성장이 지속되고, 신흥국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유럽시멘트협회(CEMBUREAU) 회원국의 시멘트생산은 13%나 대폭 감소하였다.

국가별 생산실적을 보면 중국이 21억3,700만톤(전년대비 3.6% 증가)으로 전년의 9.6%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나 세계 시멘트생산의 59.3%를 점유하였다.(전년의 56%와 비교하면 3.3%p 증가) 중국을 제외한 시멘트생산은 1.8% 증가하여 전년의 2.8% 증가와 비교할 때 감소하였다.

G20(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가 중 신흥국의 시멘트생산은 3.1% 증가하여 선진국(G7)의 0.9% 감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높은 증가율은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가 기록하였다. G7 국가 중 미국(9.1%)과 일본(6.1%)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캐나다는 1.6%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전년대비 증가가 지속되어 전체의 3%, 4%, 80%를 점유하였는데 일본은 1.5%, 인도가 6.6%를 차지하여 중국을 포함한 3개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점유율은 11.9% 이다.

CEMBUREAU 회원국의 2012년 시멘트생산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억 2,849만톤으로 스페인(39.5%), 이탈리아(20.8%)가 대폭 감소한 반면에 독일(4.8%), 프랑스(7.8%)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체코(10%), 폴란드(19%) 등 동유럽 국가들도 감소하였다.

CEMBUREAU에 의하면 세계 시멘트생산은 2001년 16억9000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30억 톤으로 10년간 두 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1년에도 금융위기로 유럽의 경기침체와 수출 둔화로 신흥국의 경제도 부진하였지만 시멘트생산 증가는 지속되었다. 특히 중국은 2000년 5억9,700만톤에서 2010년 18억6,800만톤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의 시멘트 생산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일부 속보치)
1	중국	20억6,320만톤	21억3,700만톤 (속보치)
2	인도	2억2,350만톤	2억3,900만톤
3	EU	1억9,550만톤	1억5,630만톤 (속보치)
4	미국	6,690만톤	7,300만톤 (속보치)
5	브라질	6,300만톤	6,800만톤
6	터키	6,340만톤	6,400만톤
7	일본	5,150만톤	5,470만톤 (속보치)
8	인도네시아	4,520만톤	5,350만톤
9	러시아연방	5,610만톤	5,300만톤 (속보치)
10	한국	4,830만톤	5,120만톤
11	사우디아라비아	4,800만톤	4,900만톤 (概算)
12	멕시코	3,980만톤	4,160만톤
13	독일	3,350만톤	3,240만톤 (속보치)
14	이탈리아	3,310만톤	2,620만톤
15	프랑스	1,940만톤	1,800만톤
16	남아프리카	1,120만톤	1,380만톤
17	캐나다	1,230만톤	1,250만톤
18	아르헨티나	1,160만톤	1,070만톤
19	호주	960만톤	980만톤 (概算)
20	영국	850만톤	790만톤

주 : CEMBUREAU 조사 자료, 수입 크링카로 생산한 시멘트 포함